

남원에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복지부, '공공보건으로 발전 종합대책' 발표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2022년 3월 개교 목표 추진

서남대 대대가 있던 남원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복지부는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

과되면 2021년부터 건축에 들어가 2022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대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인 만큼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일정 비율을 배분한다. 중·고등학교 졸업 등 지역에서 충분한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시·도지사가 2~3배수 추천하면 심층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으로 평가 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기존 의과대학에서 부족하거나 목표로 두지 않는 지역사회 임상실습

및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교육이 강화된 과정으로 운영된다. 임상진료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의사, 공공보건의료 정책기획 및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한 의사 양성이 목표다.

3학년까지 표준교육과정을 배운 뒤 4학년에 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등 분야별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박사 학위(MD·Doctor of Medicine)와 공중보건학 석사(MPH·Master of Public Health) 과정을 의무화해 보건행정과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역할을 맡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학생들은 졸업 후 공공병원·역학조사관 등 지정된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근무한다.

현재 복지부와 전북도, 남원시 등은 대학원 건립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대학원 건립 부지는 복지부 건립부지 선정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남원의료원의 국영화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 의과대학에서는 저학년은 교과학습 위주, 고학년은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모든 학년에서 교과학습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남원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남원의료원이 국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 시내버스 정류장 10곳 온열의자 설치

남원시가 추위에 떠는 시내버스 이용객을 위해 주요 정류장 10곳에 온열의자(사신)를 설치한다.

지난해 시범 설치한 온열의자가 호평을 받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온열의자는 탄소 소재 열선을 이용해 열을 내는 의자로, 겨울철에 30~40도의 온도를 유지한다.

남원시는 비닐 천막을 둘러싸워 찬바람을 막아주는 '온기 사랑방'도 주요 정류장에 만든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겨울에도 큰 불편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열의자와 온기 사랑방을 확대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유기상 고창군수 등 관계자들이 지난 2일 고창군치매안심센터 현관 앞에서 개소를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전북도, 로컬푸드 판매장 연말까지 35곳으로 확대 운영

매출은 작년 867억원으로 급증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가 전북에서 더 확산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연말까지 도내 로컬푸드 판매장 2곳을 확대해 총 35곳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15곳이었던 도내 로컬푸드는 5

년만인 지난해 배 이상 증가한 33곳으로 늘었다. 전북 로컬푸드 판매장의 매출은 2012년 48억원에서 지난해 867억원으로 6년 만에 18배 증가했다.

도는 또 내년부터 도청 구내식당과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에도 로컬푸드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전주농협, 동감제농협, 용진농협, 고산농협 등 4

곳을 공급 거점조직으로 선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로컬푸드 판매장이 늘면서 자체 소비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으나 공급 희망량은 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소규모의 매장을 임대해 도내 농산물의 판로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증축 개소 환자·가족 '행복지수' 향상 주력

고창군이 치매 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일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통합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증축·개소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고창군보건소 부지 내에 연면적 353㎡ 규모로 증축됐다.

센터에는 상담실, 검진실, 심터,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등이 들어섰다.

센터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맞춤형 상담,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활동, 보건복지지원 연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순창시장 버스터미널 내 편의시설 확충

순창군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순창시장 버스터미널 내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버스터미널에 비가림 시설(사신)을 설치하고 휴게실을 증축해 이용자 편의를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휴게실도 18㎡로 넓히고 안마의자, 발열의자, 냉난방기, 텔레비전 등을 설치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의 핵심은 이용객 편의에 있다"며 "상인과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9@

군산 사랑 상품권 한달만에 148억원 어치 판매

군산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가 발행 한 달여만에 148억원 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군산시는 지난달 3일 발매된 군산사랑상품권이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하루평균 10억원 이상씩 판매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완판(完販)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발

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매자는 개인이 2만 80명으로 13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7만원, 법인은 142개소로 9억원을 구매해 1개 법인당 평균 630만원, 군산시청 4억원 등이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정읍시, 소 사료용 총체벼 생산 박차...올 50억 지원

정읍시가 소 사료용 벼인 총체벼(익기전의 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정읍면에서 농업인과 농협, 관계기관 담당자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체벼 수확 현장 평가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벼 생산조정과 함께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체벼를 시범 재배 했다.

사료용 벼는 일반벼를 수확한 후 논을 그대로 이용해 재배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을 위해 추가 비용 부담이 없으며,

수확이 빨라 생산 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문체련 정읍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읍시는 한우 사육두수와 조사료 생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로서 경종과 축산의 복합영농이 많은 지역이다"며 "총체벼를 먹인 한우를 브랜드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축산용 조사료 생산장려를 위해 장려금 5억500만원을 포함해 총 50여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사정상 급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8평, 사무실 전용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보 1천만, 월50만원 임대보장

시세 - 1억 1000만원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곡성 상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1868㎡ 첫집등적합 1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농성초건너편 월산동 소방도집 대지 129㎡ 주택 66㎡ 은행5천.1억4천
- 월산동 제일파크 5층 89㎡ 은행5300 매도 9800만원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집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충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전자수지부근 2억7천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양면도로접 주거지 873㎡ 창고와 사무실 11억
- 무안 해제면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신고 3억5천 매도 3억
- 영광 흥농을 주거지 5223㎡ 공시지가 6700 매도 8500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 금남로5가역 대신증권부근 대로접 상업지 364㎡ 사육등적합 16억

상가건물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화정동 대영아파트 단지 병원적합 땅 258㎡ 5층 새건물 매 34억
- 산수동 소방도 코너 3층 상가주택 땅 96㎡ 건물 55㎡ 2억
- 쌍충동 원룸, 투룸 15실과 안집(주인거주) 월세 460. 12억5천
- 용봉동 고시텔 땅 357㎡ 건평 829㎡ 45실 은행5억 교환가 9억
- 고흥 나로도인근 팬션 땅 6891㎡ 건평 267㎡ 객실10, 은행3억, 7억5천
- 여관 목포시 옥암동 땅 439㎡ 건물 989㎡ 객실26 은행 4억 매도 7천만
- 북동 토지 538㎡ 건물 1933㎡ 은행 9억2천 매도 1억 6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팬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입적합 3억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펜션·가든 부지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농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